

'100세 시대' 노후 걱정엔 지갑 닫은 60대

지난해 소비성향 67.2%...노인인구 증가에 소비 위축

최근 6년간 해마다 감소...고령층 경제활동 지원 시급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가구 증가가 가계 소비성향 둔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전국 2인 이상 기준)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67.2%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평균 소비성향이 70%면 100만원의 가처분소득 중 70만원을 소비 지출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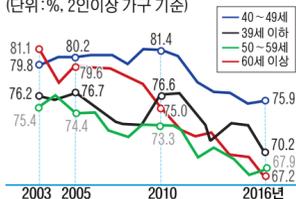
소비성향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76.7% ▲2012년 74.1% ▲2013년 73.4% ▲2014년 72.9% ▲2015년 71.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1.1%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 감소 폭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됐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만 해도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은 81.1%로 세대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76.2%), 40~49세(79.8%), 50~59세(75.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에 40~49세 가구에 역전당한 소비성향은 계속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39세 이하 가구에, 2014년에는 50~59세 가구에 추월당했다.

이처럼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6세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 기준, 빈곤율은 49.1%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나열

■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 추이



했을 때 중간수준의 값)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주춤한 것도 60세 이상 가구가 지갑을 닫게 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게다가 기준금리 1.25%라는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도 고령층의 지갑을 닫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계기간이 길어

집에 따라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해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소비 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 증가가 가계 소비성향 둔화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한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소비성향 변화의 분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소득분배,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 형태 등의 구조적 변화가 가계 소비성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이 2006년 63.83%에서 2014년 59.76%로 4.07% 포인트 낮아졌다고 확인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노인가구 비중은 6.20%포인트 확대됐고 이런 가구 형태의 변화가 전체 소비성향을 3.15%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추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메비우스' 슈퍼슬림 세계 첫 국내 출시

공기중 담배 냄새 줄여...JTI코리아 전라·경상권 판매 개시

JTI코리아는 세계적인 담배 브랜드 메비우스(MEVIUS) 'LSS V' 시리즈의 슈퍼슬림 1mg 제품 '메비우스 LSS V1 슈퍼슬림'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한다.

슈퍼슬림 제품에 공기중의 담배 냄새를 줄여주는 JTI만의 LSS(Less Smoke Smell) 기술을 결합한 제품으로, V 시리즈 고유의 시그니처 블렌딩을 적용해 더욱 부드러운 맛과 만족스러운 흡연 경험을 제공한다.

메비우스 LSS V1 슈퍼슬림의 소비자 가격은 4500원(타르/니코틴 : 1mg/0.1mg)이다. 지난 17일부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담배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소매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스티브 다이어 JTI코리아 대표는 "슈퍼슬림 제품군을 찾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어 슈퍼슬림에 JTI만의 LSS 기술을 더한 메비우스 LSS V1 슈퍼슬림 제품



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JTI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청년고용률 전국 최하위

광주 35%·전남 34.7%...구인·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치

광주·전남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1일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청년고용률은 35.0%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 청년고용률은 34.7%로 광역도 중 전북(3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광주·전남 청년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년층은 공무원,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20대 인구 순 유출은 광주 3371명, 전남 7777명에 달했다. 따라서 광주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7%(전국 평균 14.6%)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中企청 내달 10·11일 R&D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한국산업연맹회와 공동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의 R&D 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 기획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교육 수행기관인 한국산업연맹회에 온라인 신청(http://plus.auri.or.kr)하면 된다.

이번 R&D 기획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R&D 기획 프로세스 전반에 대

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작성법, 기술로드맵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5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4 16 20 28 44	1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97,968,110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0,540,447	69
3 5개 숫자일치	1,265,743	2,210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632
5 3개 숫자일치	5,000	1,651,438

삼성전자, 독일서 QLED TV 화질 기술력 시연

삼성전자가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퀴드닷발광다이오드(QLED) 포럼'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QLED 포럼은 유럽 기술 미디어들에게 QLED TV의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화질 논쟁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TV 시장 트렌드와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TV 화질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측정하는 화질 기준인 컬러볼륨 테스트를 QLED TV를 통해 직접 시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핵심 기술 전문 미디어를 통해 삼성 QLED TV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삼성 QLED 포럼'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2017년형 삼성 스마트 TV의 새로운 UI와 게임, TV PLUS, 스마트 보이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매각 저지 2차 상경 투쟁

28일 산은 본사 앞 집회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매각과 관련, 채권단에 매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상경투쟁에 나선다.

23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200명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채권단 간사인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 집결,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노조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은 본사 앞에서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1차 집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계속 매각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집회 후 노조 지도부는 산은의 매각 실무자들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2차 집회에는 별도의 면담이 계획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조가 2차 상경투쟁에 나선 것은 매각 중단을 촉구했지만 산은 등 채권단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노조 관계자는 "앞서 1차 집회 당시 매

각 중단을 요구했고, 산업은행 측도 우리의 뜻을 알겠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라며 2차 집회 목적을 설명했다. 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매각 협상이 재개된 것도 상경 투쟁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생산 중단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상황은 아니며, 2차 집회 이후 확실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일보 65 since 1952

시민과 함께가는 여민동락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與民同樂)

소통의정 열린의회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10회 / 95일] 정례회 : 2회 43일 / 임시회 : 8회 52일

구분	회기	회의 일수	주요 내용
제219회 임시회	01.09(월) ~ 01.16(월)	8	· 2017년도 시장계획 보고분회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상임위)
제220회 임시회	02.15(수) ~ 02.17(금)	3	· 조례안 등 인건심의
제221회 임시회	03.16(목) ~ 03.23(목)	8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222회 임시회	04.17(월) ~ 04.21(금)	5	· 1회추경예산안 심의
제223회 임시회	05.16(화) ~ 05.23(화)	8	· 상반기 의원 연찬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06.14(수) ~ 06.23(금)	10	· 시장질문 · 2016회계연도 예비결산안 승인
제225회 임시회	07.03(월) ~ 07.07(금)	5	·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제226회 임시회	09.12(화) ~ 09.21(목)	10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 2회추경 예산안 심의
제227회 임시회	10.16(월) ~ 10.20(금)	5	· 하반기 의원 연찬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11.13(월) ~ 12.15(금)	33	· 다음연도 시장연설시장 · 시장질문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7년도 결산추경안 심의 ·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정읍시의회 www.jcc.or.kr